

## 탐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번 호는 어린이 청소년 독서교육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소개합니다.

### Q —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는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이 어린이 책을 읽고 어린이와 함께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가꾸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 단체입니다.

1980년 5월에 서울양서협동조합 산하 단체로 창립하여 어린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에 선정한 좋은 동화를 알리고,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 안내 자료를 펴내며 독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국 86개 지역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여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교실이나 기관에서 책 읽어 주기 자원 활동을 하며, 독서 강연, 책 전시회, 어린이 도서관 설립, 빛 그림 상영 등 다양한 어린이 책 독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본 인터뷰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최은희, 김명수, 김정화, 나진경, 이윤숙, 지선명)과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를 책과 멀어지게 하는 점수 따기 독서 지도, 감독하고 평가하는 독서 교육, 어른의 목적과 욕심이 앞선 독서 논술사 교육에 반대합니다. 책을 자유롭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누구나 즐거이 책 읽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어른의 인식을 바꾸고, 학교와 공공 도서관의 독서 문화를 가꿉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독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좋은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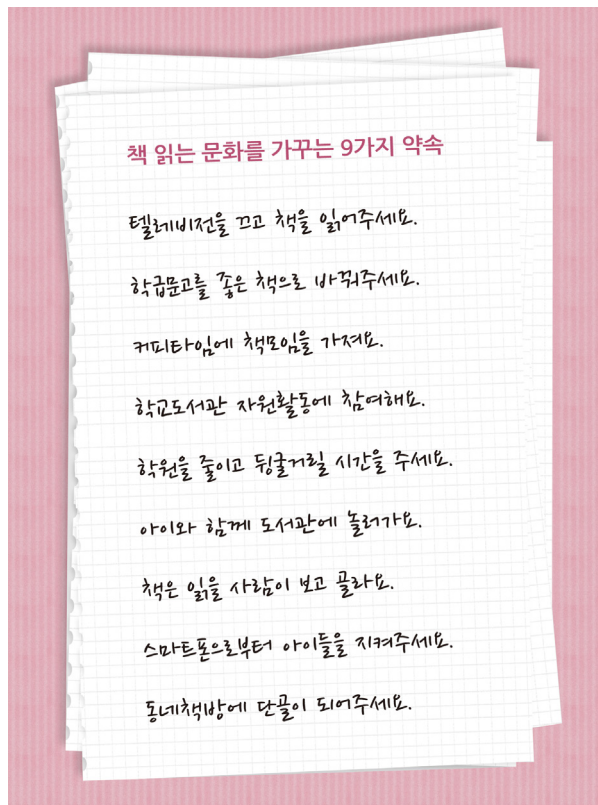
좋은 책을 펴내는 저자와 출판사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지역 서점이 살아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명한 소비자 운동을 벌입니다.

### Q — 연구회의 올해 주요 활동(추진 활동)을 알려 주십시오.

해마다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 발행하고 있습니다. 목록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읽고 골라 연령별 추천 목록을 만듭니다. 8만 부 제작하여 전국에 무료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을 다운 받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동화 읽는 어른』 정기 간행물 발행합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기관지로 그 달의 화두와 여러 갈래의 어린이 책 관련 글과 새로 나온 책 소개, 어린이 책 문화 활동, 회원들의 삶을 담은 생활 글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어린이 책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책 읽어주세요’와 ‘옛 이야기 한 자리’ 쪽지를 통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칩니다.

2020년에는 ‘세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한국 그림책 100선’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공공 도서관에 메일로 안내하여 한국 그림책을 적극 알리려고 합니다.

5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함께 공동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화 100년, 으랏차차 우리 동화’라는 제목으로 한국 동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동화를 소개하고 적극 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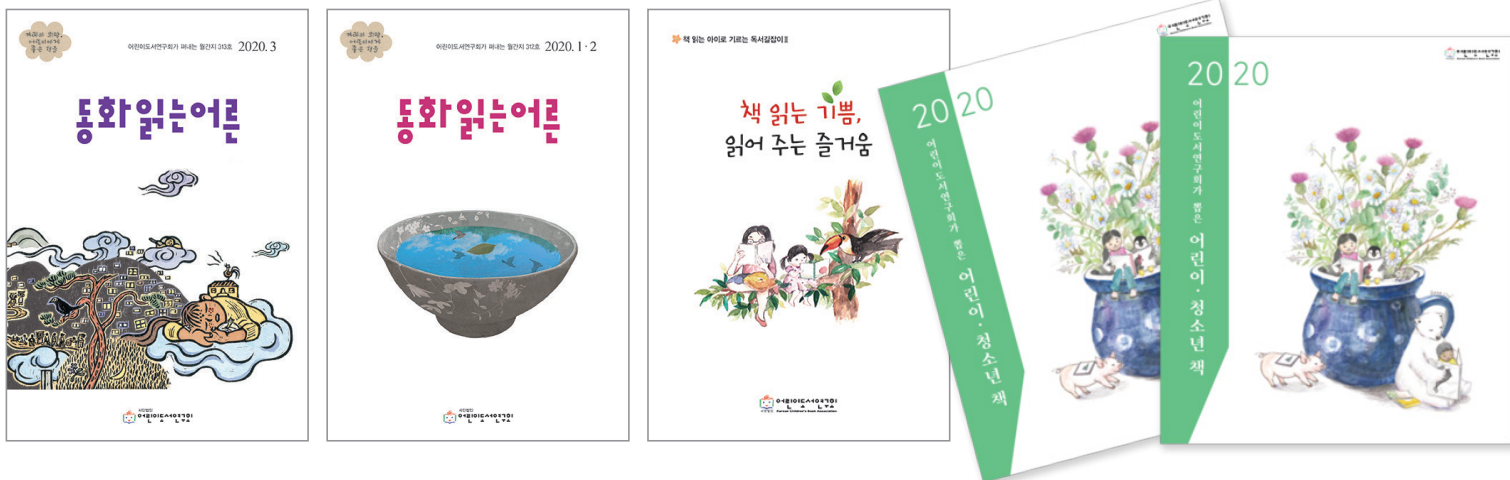


자 준비한 전시입니다. (전시 기간: 5.6.~8.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층 전시실. 코로나로 전시 관람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년 진행하던 동화동무씨동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동화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는 어린이 책 모임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한 학기 한 책 읽기’에 많이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라도 학교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들이 학교나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동화동무씨동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기 혹은 취소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도 같은 상황이겠지만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도서연구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로 연기한 4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어린이 독서 인식 변화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목록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긴 역사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각 지역에서 책 읽어 주기 활동과 책 보내기 사업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Q** — 연구회 선생님들은 책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적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또 그것을 수업과 교육 활동으로 연계, 활용하시는지요?

**김명수** 현재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 삶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로서 사회인 학습을 경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책은 개인이 성장하는 다양한 단계에서 경험, 관계, 사회를 보는 창을 감성적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반적으로 책을 통해 생각을 끌어내고 연관된 활동을 하고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합니다.

**나진경** 수업 초반 동기 유발에 책을 투입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감성을 자극하곤 합니다. 또 학습 목표와 관련된 책이라면 수업 전반에 그림과 글 모두를 활용하여 완성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자연 과학이나 예술 관련 책들도 초등수업에는 유용한 학습 내용 자체가 됩니다. 또 어떤 책은 학습의 문화가 되어 가치관을 형성하고 놀이나 생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윤숙** 어린이 책을 만난 지 15년이 되어 갑니다. 어린이 책을 읽으며 각 교과, 주제와 어떻게 연결 짓나를 고민합니다. 교사의 말보다 아름답고, 아이들 마음과 닿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어린이 책을 읽을 때는 책 속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모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는 책을 통해 삶을 나눕니다. 내 삶을 들려주고 아이들 삶을 묻습니다. 그냥 물었을 때보다 책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요즘은 좋은 어린이 책을 발견하면 교과서 대신 텍스트로 온전히 사용하여 성취 기준에 도달하려고 활동을 구성합니다. 언어 활동이 서툰 아이들과 동시를 함께 읽고, 그림책을 함께 읽습니다. 긴 책은 부모님들께 하루에 하나씩 읽어 달라 부탁드립니다.

**김정화** 책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한다기보다는 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에서 자칫 책의 감동과 재미보다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 찾기 등 순수한 책의 세계로 빠져들지 못하고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체해서 수업 목





표에 도달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책 자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주저하게 됩니다. 수업 동기 유발할 때, 그림책의 경우 그림 기법을 미술 시간에 활용,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어 줍니다. 대부분 책 읽어 주는 활동을 합니다.

**지선명** 배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공감과 소통이 우선이기에 독자와 책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책은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확장시켜 줍니다. 게다가 감동이라는 속성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어린이 책을 수업과 연계해서 꾸려 나가면 아이들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배움을 확장시킬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 Q —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김명수** 연구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이라는 목적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줄 수 있는 학교와 사회 외적인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어린이가 좋은 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합니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넘어서 어린이가 좋은 책을 통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은 늘 교사로서 출발점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나진경** 사람과 생각을 얻었습니다. 교사사회 동화밥그릇에서 제2의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들을 나누면서 다른 생각들도 만나게 되고 생각이 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윤숙** 무엇보다 사람이지요. 도서관에서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을, 모임에서는 책과 아이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함께했던 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아쉽긴 하지만 그것이 든든한 바탕입니다. 어린이 책을 만나며 어릴 적 나를 만나 위로하기도 하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 아동문학교육과를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책방을 찾게 되고,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는 것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권정생 선생님과 임길택 선생님요.

**김정화** 동화를 알게 되었고 올바른 독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동화를 좋아하고 관심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읽지 못했다면 꾸준히 책을 읽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도 혼자했다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지 못했을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선명** 수단이나 목적으로서가 아닌, 책 그 자체에 빠져 읽고, 읽어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급 아이들에게 그저 좋은 책을 많이 읽어 주고 있고, 한 작품을 수업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성취 기준만 달성하면 오롯이 책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 경험이 쌓여 책을 어떻게 아이들과 읽을 것인지 매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을 통해 내 안의 아이도 만나고, 관심이 같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로서 다양한 배움도 얻으며 늘 성장하는 인간이 되게 해 줍니다.

#### Q — 앞으로 연구회의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학부모와 교사 회원들이 매주 모여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책 모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국에 3천여 명의 회원들이 매주 모여 어린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독서 문화 운동입니다. 어린이 책을 읽은 힘은 회원들의 성장과 함께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 독자로서, 어린이 책 활동가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책 문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책, 동화, 동시, 옛이야기, 책읽어 주기 활동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좋은 어린이 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좋은 책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목록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나눌 것입니다. 어린이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며 어린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과 만나는 일을 지속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좋은 책을 온라인으로 적극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년별, 연령별 좋은 책 목록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목록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학기 한 책 읽기’에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동화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좋은 동화는 훌륭한 문학입니다. 어린이는 살아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할 때 어린이는 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책을 평생의 친구로 여깁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동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학생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삼백이의 칠일장』(1. 얘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2. 삼백이도 모르는 삼백이의 이야기, 문학동네, 천효정 지음)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유는 그저 단순히 책을 덮을 때까지 손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고 동물과 삼백이의 인연이 수수께끼처럼 연결되어 뒹굴거리며 보기에 딱 좋습니다.

**이운숙** 요즘 아이들과 학급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동시집을 두 권씩 골라 가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동시 한 편을 돌아가며 나눕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날도 있고, 하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스스로 동시 한 편을 골라 친구들에게 배달하는 아이들이 예뻐합니다. 시 공책에 정성껏 옮겨 적는 손길도 예뻐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가끔 그렇게 여유를 부려 봅니다. 어떤 책이든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자 도서관에서도 책을 볼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책을 책장을 넘겨 읽는 게 최고지만요.

**김정화** ▶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쫓대 없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SF에 빠져 있어서 최근에 읽은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열세 번째 아이』(문학동네, 이은용)라는 책입니다. 디스토피아이지만 희망을 볼 수 있는 묘한 책입니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작가의 힘도 있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입니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요즘에야 읽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되는 책은 언젠가 늘 만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지선명** ▶ 새로운 국면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껏 활용하지 않은 기기나 매체 사용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될지라도, 사람의 목소리와 지면을 넘기는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방식과 방법이 다를 뿐 행위는 같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고 싶은 책을 읽어 주는 영상물을 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권하는 책은 주로 앞부분이라도 읽어 주고, 읽도록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흥미나 재미보다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책을 권하면 좋겠지요. 연구회에서 권하는 책들은 대부분 마음이 잘 통해서 연구회 목록을 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화동무씨동무책 목록은 아이들이 추천한 책이라 추천 소감을 읽어 보면 아이들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다시 읽어 보고는 학급이나 학년에 맞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